

노년층의 건강과 운동생활에 따른 기능성 소재의 인지 및 착용에 관한 연구

김정민 · 상정선 · 박명자[†]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Awareness and Wearing of Functional Fabrics Related with Health and Exercise Life of Silver Generation

Jung-Min Kim, Jeong-Seon Sang and Myung-Ja Park[†]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2009. 12. 28. 접수일 : 2010. 2. 8. 수정완료일 : 2010. 2. 15. 게재확정일)

Abstract

Understanding awareness and wearing behavior of functional textiles for silver gener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lothing products development to improve and maintain their health and marketing strategy fit for user characteristics. For empirical research, a survey was developed and the aged 50 and above were 332 respon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awareness for both comfort-oriented and health/safety-oriented functional fabrics in high health-conscious group was much higher than that in low health-conscious group. In number of wearing times, health body and high-conscious group wear comfort-oriented fabrics more frequently, while weak body group wear health/safety-oriented fabrics more often. The health-consciousnes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possession of active sportswear with various functions. Second, the awareness of functional fabrics in exercise activities groups was much higher than that in exercise-conscious groups. High exercise activities group know more about the wet sensation-related fabrics and clothing materials for outdoor activities. Low exercise-conscious group put on health/comfort-oriented fabrics for casuals more frequent than functional fabrics for sportswear. High exercise activities group preferred to wear sportswear suitable for outdoor activities. The aged people have a lot of health/comfort-oriented functional casual wear appropriate for indoor activities regardless of exercise-consciousness. However, the more they enjoy exercise activities the more they are interested in functional sportswear. Even though they were unconcerned with exercise, older people are interested in functional casual clothes. As a conclusion, the high interest in health and exuberant activities in silver generation arose the necessity of new multi-functional clothing products.

Key words: silver generation(노년층), health and exercise life(건강과 운동생활), functional fabrics(기능성 소재), awareness(인지), wearing behavior(착용).

이 논문은 2008년 HYU연구특성화사업으로 전액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HYU-2008-T).

[†] 교신저자 E-mail : mjapark@hanyang.ac.kr

I. 서 론

현대 사회는 의학의 발달과 고도의 경제적 성장으로 문화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초과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이러한 추세는 2018년까지 지속되어 그 비율이 14%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어 본격적인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년층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을 향상시켜주어 건강을 증진하는 동시에 체형의 결점을 감추어 주어 심리적 만족을 주는 의복을 구입할 수 있는 실버마켓(silver market)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은 노년층은 유행을 추구하는 정도가 젊은 층보다 낮으며, 사회 활동이나 외출의 기회도 빈번하지 않으므로 의복의 구매 회수가 적게 나타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현대의 노년층들은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이고 싶은 욕구와 활동적이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 여행이나 레저(leisure) 활동, 노인학교 등의 활발한 사회·문화 활동으로 새로운 의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¹⁾.

그러므로 실버마켓에 대한 주된 목적이 이제까지는 노후의 건강 문제였다면 이제부터는 건강한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류산업이나 레저산업 등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적절한 시기인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노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의류산업에 있어서도 노년층을 하나의 소비 대상으

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구매력 있는 노년층을 위한 각종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년층을 위한 의류산업의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²⁾. 그러므로 새로운 구매집단인 노년층을 위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의 개발에 관심을 높이고 의류업계에서도 노년층을 위한 의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노년 의복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

노년층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운동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노년층 전반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기능성 소재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생리적인 기능이 많이 저하된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의복 내 기후를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소재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 유지, 쾌적성 향상, 친환경적 생활을 지향하는 액티브한 신 노년층의 증대는 물론 체온 조절, 세균 방어 및 신체 활동에 끼치는 악영향을 완화시키는 기능의 의복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 질환에 걸리는 환자도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능성 소재는 이미 의류분야에서 널리 시판되고 있고, 소재의 효능으로 인하여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신체적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심리적 변화가 예상되는 노년층 소비자를 위해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는 소재의 다양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연구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³⁾. 또한 기능성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소비자들이 이들의 특성을 알기 쉽지 않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제품 개발에 쫓겨 소비자들이 기능성 소재에 대해 어떤 평가 또는 기대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1) 임재린, “노년기 여성을 위한 기능성 의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 2.

2) 이수진, “노년여성의 체형에 따른 재킷패턴 설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 2.

3) 홍경희, 최인려, “노년층 소비자의 기능성소재 추구 혜택, 태도 및 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7권 1호 (2009), p. 15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건강과 운동생활에 따른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인지도 및 착용 정도와 만족도, 소유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요구도, 불만사항을 조사하여 노년층에게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성 의복 재료를 연구 개발하고, 최적의 기능성 건강 의복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의류 생산자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1. 노년층의 특징

1) 노년층의 신체적·생리적·심리적 특징

각 연령층은 각기 다른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노년층은 골격에 변형이 나타나게 되어 노년 특유의 체형적인 특징을 나타낼 뿐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근육 및 각 기관과 피부의 약화현상이 일어나고, 심리·정신적으로도 위축하게 된다. 또한 뇌의 신경전도 속도의 감소로 환경온도에 민감히 대처하지 못하여 체온 조절 반응이 불안정하게 되며, 반응 속도 또한 늦어지기도 하여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화되므로 체온 조절 기능 역시 다른 생리기능과 마찬가지로 저하된다. 또한 젊은 층에 비해 피부에 분포하고 있는 냉점의 수가 크게 감소하게 되어 추위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여 저체온이 되기 쉬우며, 피부의 발한 능력과 산열량도 적어진다. 또 젊은 층보다 체내온도는 높아 더위에 약하고 특히, 땀의 발생량이 저하되며 땀샘 하나로부터 발생하는 땀의 양 또한 적어진다. 이처럼 환경에 따라 체온 조절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땀의 배출도 줄어들어 피부는 더욱 건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노인들은 신체적, 생리적인 기능과 적응력이 감퇴되어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⁴⁾. 이러한 노년기의 생리적 변화는 불안, 초조, 자신감 상실, 피로 등 심리적 반응을 가져오게 하므로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게 되고 의욕이 상실되어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뿐 아니라

노인의 행동과 적응력 등 심리·사회적 부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⁵⁾.

이렇듯 노년층의 생리적 특성은 다른 연령층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으므로 의복을 통해 생리적인 기능 저하를 보완한다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년층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성, 보온성 면에서 의복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⁶⁾. 또 단순히 입는다는 개념을 넘어서 신체적·생리적·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노년층에게 자아와 자신감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유도하여 만족스러운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신 노년층들의 사회 참여 및 자아 회복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의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의복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 노년층은 진보적, 적극적으로 생활하려는 독특한 욕구와 필요한 구매력을 지닌 훌륭한 세분시장임이 분명하다.

2)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

기존의 ‘실버’는 회색 또는 백발(白髮), 황혼(黃昏) 등의 연상적 이미지로, 과거에는 ‘자리보전하면서 생의 마감을 준비할 나이’라는 뜻도 숨어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전후에 태어난 노년층들은 ‘뉴 실버’의 약자로 NS세대라고 쓰기도 하고, 액티브 실버세대, 골드세대(황금세대), S세대, G세대라고도 부르며, 오늘날의 실버마켓을 주도할 새로운 고급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 되어 갈수록 산업의 무게 중심도 이동하게 되어 노년기를 인생에 있어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닌 제 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전의 노년층들이 정년퇴직 후 여생을 소일거리로 지내온 반면 이들은 그동안 축적한 사회적 지위와 부를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스포츠·여행 등 동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에 열중하는

4) 서병숙,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1991), pp. 11-14.

5) 김영애, “노년기 여성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6.

6) 정혜원, 김구자, “노년 여성의 내의 구매 행동,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권 5호 (2002), p. 738.

특징을 지녔다. 이렇듯 노년층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전의 노년층의 일반적인 모습이 외롭고 무기력하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노년층의 모습은 적극적이며 활기차고 또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세대로 부각되고 있어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제품의 개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⁷⁾. 또, 여가생활도 다양하게 즐기는 경향을 보이는데 성기원 외⁸⁾의 연구에서 액티브 실버세대는 해외 여행, 골프, 국내 여행, 조깅/산책, 등산 순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요구하는 여가활동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의 노인상은 변모하고 있다. 은퇴 후인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며, 자녀와 함께 사는 대가족보다 핵가족을 더 선호하며, 젊고 건강하게 노후를 즐기고자 하는 성향도 강하여 건강 유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뉴 실버세대의 등장으로 실버산업의 변화가 크게 예고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뉴 실버세대 소비자층을 겨냥한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55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미 조기퇴직으로 은퇴를 시작한 경우도 있으며, 55년생이 60세가 되는 2015년에는 본격적인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노년층의 증가는 이전의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임팩트를 가지고 왔던 것처럼 또 새로운 노년층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러한 액티브 라이프스타일의 노년층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실버산업도 이러한 액티브 실버세대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실버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50대를 장년층 또는

예비 노년층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연구마다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50대 이상인 예비 노년층을 노년층의 범주에 넣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20년간 노년층 관련 산업을 주도할 주 소비층은 바로 예비 노년층인 베이비부머들이 될 것이므로 근 미래의 소비자인 이들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미래의 실버의류산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기능성 소재의 종류와 생산 현황

기능성 소재란 섬유가 갖는 기존 형태에 특수한 기능을 새로이 부여한 소재로, 소재의 기능성은 원사단계 또는 제작된 소재에 물, 열,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가공기술로 외관과 성능을 변화시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며, 인간의 의생활을 쾌적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해주는 기능성 제품으로 상품화 되고 있다⁹⁾. 의류용 기능성 소재로는 성능의 특징에 따라 쾌적 지향 소재와 건강·안전 지향 소재로 구분된다.

쾌적 지향 소재에는 보온성 소재, 흡수·흡습성 소재, 투습·방수(발수)성 소재, 신축성 소재, 경량 소재 등이 있다¹⁰⁾. 의복을 입는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체온을 유지하고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쾌적 지향 소재는 외부 환경 변화로부터 의복 내 기후를 쾌적하게 유지시켜 주고, 움직임 시 마찰이나 압박으로 인하여 인체를 구속하지 않아야 하며, 비나 눈으로부터 의복이 젖지 않게 하는 성능 등을 발휘한다. 쾌적 지향 소재는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쾌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여 의류용 소재로 널리 개발되어 상품화 되고 있다.

건강·안전 지향 소재에는 항균·방취 소재, 자외선 차단 소재, 전자파 차단 소재, 황토 소재, 키토산 소재, 알로에 소재, 방향성 소재 등이 있다. 의복의 일차적인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외부 환경과 각종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이다. 최근 물질이 풍요

7) 정삼호, “뉴 실버 디자인의 연구 개발방향,” *한국의류학회 2006년도 제30회 춘계학술대회* (2006), p. 31.
 8) 성기원, 이연숙, 장윤정,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현황 및 미래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5권 4호 (2005), pp. 142-144.
 9) 장지혜, *신피복재료학*, (서울: 신광출판사, 1996), p. 126.
 10) 조길수, 정혜원, 송경현, 권영아, 유신정, *새로운 피복재료학*, (서울: 동서문화원, 2003), pp. 329-353.

로워지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건강·안전 지향 소재들이 많이 활용되게 되었다.

국내 기능성 섬유 시장은 스판덱스, 흡한속건, 투습방수, 항균·방취, 원적외선 방사 등의 소재가 보편화된 상황이다. 이는 고객이 먼저 소재 브랜드를 찾고 그 기능을 즐기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션채널¹¹⁾ 기사에서는 디자인과 품질만을 앞세우던 국내 패션 업체들도 에코트렌드의 영향으로 웰빙, 로하스, 자연친화를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내걸고 기능과 건강을 고려한 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미 범용화된 흡한속건, 신축성 소재는 물론 투습·방수, 방풍 소재와 자동 온도 조절, 정전기 방지,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다양한 신소재가 아웃도어, 골프와 같은 스포츠웨어 소재뿐만 아니라 여성복, 캐주얼 시장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 용도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원사와 원단 개발이 확산되면서 기존 소재보다 기능성을 갖추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하고, 이너웨어 등 다양한 복종에서도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종전의 포멀, 캐주얼, 스포츠로 구분되던 것이 경계가 없어지고 캐주얼 스포츠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 통합되어 가고 있다. 특히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이러한 의류 제품들의 기능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데 대표적인 소재로 개발 초기단계에는 전문 스포츠용 제품으로 인식됐지만, 현재는 일반 생활 속에서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착용감을 제안하는 범용화된 소재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흡한속건/항균·방취 소재가 있다. 최근에는 종전의 특수한 원사단면과 표면적에 의한 흡한속건 기능은 물론 은나노 기술에 의한 항균성을 부가하여 스포츠용품 전반에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집약적 기술 개발을 통한 폭넓은 제품 개발이 급진전되고 있다.

여기에 나노섬유, 초극세사 등 업그레이드 된 최첨단 소재와 글로벌 트렌드에 영향을 받은 대나무, 숯, 녹차, 고추, 코코넛, 비타민, 황토, 알로에, 키토산 등에 이르기까지 자연성분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소재 등 적극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재들이 개발되어 보편화되고 있어 새로운 소재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고기능성 섬유재료와 고감성 패션 제품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소비자의 의생활을 다양화, 고급화하여 삶의 질을 높일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또 다른 용도와 수요를 창출해냄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노년층은 신체 기능의 퇴화에 따른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되어 일반소재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보온성, 흡수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위한 기능성을 갖춘 소재 즉, 노인의 건강과 노인 특유의 체취와 땀 배출, 건조한 피부 및 더 나아가 수면 연장을 위한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성 소재가 요구되어지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노년층 기능성 소재에 관한 선행 연구

노년층에 대한 국내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시작되어 의식주 전반에 걸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의류학 분야에서는 의복 구성학 측면에서 노인의 체형 변화에 따른 의복 설계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노인들의 의복 심리, 의류 상품 소비자로서의 노년층 연구 등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노년층의 의류 소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윤철¹²⁾은 60세 이후는 신체기능의 퇴화에 따른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되어 보온성, 흡수성을 고려하여 여성복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반 소재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건강을 위한 기능성을 갖춘 소재를 활용하여 고기능성과 패턴을 달리한 의류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권순정과 문명희¹³⁾는 실버세대를 위해서는 가격대가 비교적 낮고 맞춤형 새와 소재에 보다 신경을 쓴 편안한 캐주얼 스타일

11) “국내 패션 시장 기능성소재 현황” 패션채널 [온라인잡지] (2007년 9월 1일 [2009년 8월 20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fashionchannel.co.kr/

12) 박윤철, “실버의류에 적합한 가공기술: 실버섬유의 키워드는 건강과 쾌적,” 섬유기술과 산업 8권 2호 (2004), pp. 141-151.

13) 권순정, 문명희, “실버세대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동주대학교 논문집 26권 (2004), pp. 481-496.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유덕과 김미영¹⁴⁾은 노년층은 디자인 선택 기준으로 체형 커버, 짙고 개성적 순으로 나타났고 여름 상의 소재는 흡수성, 하의는 신축성, 무늬는 무지, 물방울, 꽃무늬 순이고, 소재 특성은 세탁안정성과 다림질이 필요 없는 소재를 중요시했다.

그 밖에 노년층 의류에 대한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에 대한 선행 연구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기는 하지만 체형 변화에 대한 연구나 시장 세분화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의복 관여에 대한 연구,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노년층을 위한 시장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면 노년층의 선호디자인과 미의식, 의복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노년층 세대를 위한 건강 의복 소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의복소재의 기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III. 연구문제 및 절차

1. 연구문제

첫째, 노년층의 건강 상태 및 건강 관심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인지, 착용 경험, 만족도, 소유도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노년층의 운동 관심 및 운동 참여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인지, 착용 경험, 만족도, 소유도 차이를 알아본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노년층의 연령 기준이 각 연구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춘 노인 인구의 성장과 더불어 향후 실버산업의 규모가 한층 커지리라는 전망 아래 현재의 노년층 뿐 아니라 10년 이내에 노년층에 진입할 50세 이상의 예비 노년층들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가 기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스스로 질문에 답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훈련된 조사원이 응답을 받아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32)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지역	수도권	158	47.6
	수도권 외	174	52.4
연령	50~59세	189	56.9
	60대 이상	143	43.1
성별	여성	204	61.4
	남성	128	38.6
월평균 의복비	10만원 미만	139	41.9
	10~30만원	152	45.8
	30~50만원	33	9.9
	50~100만원	8	2.4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26	7.8
	100~200만원	52	15.7
	200~300만원	81	24.4
	300~400만원	61	18.4
	400~500만원	47	14.2
	500만원 이상	65	19.6

적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노년층들이 이해하기 쉽고 특성에 맞도록 예비 설문지를 작성하여 예비조사 및 논의의 과정을 거친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자료 본 조사 기간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이었으며, 총 400부를 배부하여 351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설문 19부를 제외한 332부의 자료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응답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로서 설문조사 방법을 실행하여 건강과 운동생활에 관한 문항, 기능성 소재의 성능별 구분에 따른 인지도, 착용 정도, 만족도에 관한 문항, 기능성 소재의 용도별 구분에 따른 소유 제품 문항에 관한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14) 김유덕, 김미영, “중노년층 여성의 의복추구 이미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권 6호 (2004), pp. 746-757.

건강과 운동생활에 따른 실태 파악을 위해 김인형¹⁵⁾, 이신숙¹⁶⁾, 임재린¹⁷⁾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건강 상태, 건강 관심 및 운동 관심, 운동 참여와 관련된 문항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능성 소재의 성능별 구분에 따른 인지도, 착용 정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먼저 기능성 소재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쾌적 지향 소재 5종(보온성 소재, 흡수·흡습성 소재, 투습·발수성 소재, 신축성 소재, 경량 소재)과 건강·안전 지향 소재 6종(항균·방취 소재, 정전기 방지 소재, 자외선 차단 소재, 황토 소재, 키토산/알로에 소재, 방향성 소재)의 총 11종의 기능성 소재를 추출하였다. 기능성 소재의 성능별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복합기능성 스포츠웨어, 건강 쾌적 캐주얼 의류, 의료용 섬유 제품으로 제품군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제품에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다중응답으로 질문하였다. 예비조사 시 착용 제품에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4종(보온성, 흡수·흡습성, 투습·발수성, 신축성)의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은 각각 사진을 제시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예비조사에서 빈도가 낮았던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은 기타 응답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 χ^2 검증, *t*-test,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노년층의 건강 상태 및 건강 관심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인지 및 착용 차이

노년층의 건강과 운동생활에 따른 집단 유형을 구분하고자 건강 상태, 건강 관심, 운동 관심 및 운동 참여와 관련된 문항에서 각 관련된 평균값을 구하여 평균값보다 낮은 점수를 가진 집단은 저집단으로, 평균값보다 높은 점수를 가진 집단은 고집단

〈표 2〉 노년층의 건강과 운동생활에 따른 집단 유형 구분 (N=332)

구분	저집단 n (%)	고집단 n (%)
건강 상태	153 (46.1)	179 (53.9)
건강 관심	171 (51.5)	161 (48.5)
운동 관심	181 (54.5)	151 (45.5)
운동 참여	168 (50.6)	164 (49.4)

으로 구분하였다. 두 집단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1)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인지도

노년층의 건강 상태 및 건강 관심에 따른 고저 집단간의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인지하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 상태의 고저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소재는 보온성 소재($t=-2.78$, $p<0.01$), 흡수·흡습성 소재($t=-3.08$, $p<0.01$), 투습·발수성 소재($t=-2.31$, $p<0.05$), 신축성 소재($t=-2.20$, $p<0.05$)로 나타났다. 건강 관심 고저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소재는 보온성 소재($t=-4.68$, $p<0.001$), 흡수·흡습성 소재($t=-4.76$, $p<0.001$), 투습·발수성 소재($t=-4.90$, $p<0.001$), 신축성 소재($t=-3.52$, $p<0.001$), 경량 소재($t=-2.54$, $p<0.05$)와 자외선 차단 소재($t=-2.27$, $p<0.05$), 황토 소재($t=-2.70$, $p<0.01$), 방향성 소재($t=-2.13$, $p<0.05$)로 나타났다.

즉, 건강 상태 고집단이 쾌적 지향 소재를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건강 관심 고집단이 쾌적 지향 소재뿐만 아니라 건강·안전 지향 소재에 있어서도 높은 인지도를 보인 것으로 보였다. 건강 상태 집단 간 차이에서는 황토 소재와 키토산/알로에 소재가 저 집단에서 좀 더 인지한다고 나타난 것으로 보아 건강 즉, 피부가 약해진 노년층들이 황토 소재나 키토산/알로에 소재처럼 좋은 영향을 주

15) 김인형, “실버계층의 라이프 스타일과 스포츠 소비행동분석을 통한 실버 스포츠 마케팅 전략”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 196-171.

16) 이신숙, “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생활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 123-131.

17) 임재린, “노년기 여성을 위한 기능성 의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 138-143.

〈표 3〉 건강 상태 및 건강 관심 집단 유형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인지도

기능성 소재		건강 상태		t	건강 관심		t
		저집단 (n=153)	고집단 (n=179)		저집단 (n=171)	고집단 (n=161)	
쾌적 지향 소재	보온성 소재	3.10	3.37	-2.78**	3.04	3.48	-4.68***
	흡수·흡습성 소재	2.93	3.25	-3.08**	2.87	3.35	-4.76***
	투습·발수성 소재	2.97	3.22	-2.31*	2.86	3.37	-4.90***
	신축성 소재	3.43	3.63	-2.20*	3.39	3.70	-3.52***
	경량 소재	3.02	3.13	-1.09	2.95	3.22	-2.54*
건강 안전 지향 소재	항균·방취 소재	2.82	2.88	-0.64	2.78	2.93	-1.50
	정전기 방지 소재	2.98	3.01	-0.30	2.94	3.06	-1.22
	자외선 차단 소재	2.75	2.84	-0.86	2.68	2.93	-2.27*
	황토 소재	3.05	3.04	0.08	2.92	3.19	-2.70**
	키토산/알로에 소재	2.46	2.41	0.48	2.37	2.50	-1.25
	방향성 소재	2.76	2.85	-0.91	2.70	2.93	-2.13*

* $p < 0.05$, ** $p < 0.01$, *** $p < 0.001$.

는 소재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2)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착용 정도

노년층의 건강 상태 및 건강 관심 고저 집단 간의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착용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내었다. 먼저 두 집단 모두 신축성 소재와 보온성 소재의 착용 정도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건강 상태에 따라 구분된 고저 집단간의 차이에서는 보온성 소재($t = -2.04, p < 0.05$), 흡수·흡습성 소재($t = -3.49, p < 0.01$), 투습·발수성 소재($t = -2.02, p < 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건강 관심에 따른

〈표 4〉 건강 상태 및 건강 관심 집단 유형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착용 정도

기능성 소재		건강 상태		t	건강 관심		t
		저집단 (n=153)	고집단 (n=179)		저집단 (n=171)	고집단 (n=161)	
쾌적 지향 소재	보온성 소재	3.08	3.28	-2.04*	3.02	3.36	-3.46**
	흡수·흡습성 소재	2.82	3.20	-3.49**	2.81	3.25	-4.10***
	투습·발수성 소재	2.81	3.03	-2.02*	2.78	3.09	-2.88**
	신축성 소재	3.29	3.36	-0.61	3.22	3.45	-2.00*
	경량 소재	3.02	2.94	0.65	2.95	3.01	-0.47
건강 안전 지향 소재	항균·방취 소재	2.27	2.16	1.08	2.19	2.22	-0.30
	정전기 방지 소재	2.69	2.53	1.39	2.61	2.59	0.16
	자외선 차단 소재	2.43	2.45	-0.20	2.32	2.57	-2.27*
	황토 소재	2.32	2.16	1.44	2.23	2.24	-0.02
	키토산/알로에 소재	2.01	1.85	1.63	1.94	1.91	0.24
	방향성 소재	2.08	2.01	0.77	2.05	2.03	0.17

* $p < 0.05$, ** $p < 0.01$, *** $p < 0.001$.

고저집단의 차이에서는 보온성 소재($t=-3.46, p<0.01$), 흡수·흡습성 소재($t=-4.10, p<0.001$), 투습·발수성 소재($t=-2.88, p<0.01$), 신축성 소재($t=-2.00, p<0.05$), 자외선 차단 소재($t=-2.27, 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 상태나 건강 관심 모두 고집단에서 대체로 쾌적 지향 소재를 더 자주 착용하였다.

여기서 건강 상태 고집단은 흡수·흡습성 소재, 투습·발수성 소재 등의 활동적인 기능성 소재를 더욱 많이 착용하지만, 저집단에서는 항균·방취 소재, 정전기 방지 소재, 황토 소재, 키토산/알로에 소재, 방향성 소재와 같은 건강·안전 지향 소재를 더 많이 착용하는 상이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노년층은 건강 상태와 건강 관심 정도에 따라 기능성 소재의 착용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건강 상태가 좋은 집단은 운동과 관련하여 기능성 소재를 착용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집단은 그로 인하여 건강과 더욱 밀접한 소재들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3)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만족도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착용해 본 후, 노년층의 건강 상태 및 건강 관심 고저 집단 간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만족도는 건

강 상태에서 집단 간 차이는 흡수·흡습성 소재($t=-2.24, p<0.05$)와 투습·발수성 소재($t=-2.66, p<0.01$)에서 건강 상태 고집단이 더 만족한다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습윤감 관련 기능에 있어서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 관심에서는 보온성 소재($t=-3.15, p<0.01$)와 자외선 차단 소재($t=-2.31, p<0.05$)에서 건강 관심 고집단이 더 만족한다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에 있어서 높은 평균값을 보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쾌적 지향 소재들은 5점 척도에서 평균값이 모두 3점 이상으로 보통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건강·안전 지향 소재 중 키토산/알로에 소재와 방향성 소재는 보통보다는 약간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러한 소재들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발한 연구 및 개발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소유도

노년층의 건강 상태 및 건강 관심 고저 집단의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소유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건강 상태에서는 흡수·흡습 기능성 셔츠($\chi^2=7.04, p<0.01$)만 건강 상태 고집단이 더 많이 소유한다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에, 건강 관심에 대한 집단에

<표 5> 건강 상태 및 건강 관심 집단 유형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만족도

기능성 소재		건강 상태		<i>t</i>	건강 관심		<i>t</i>
		저집단 (<i>n</i> =153)	고집단 (<i>n</i> =179)		저집단 (<i>n</i> =171)	고집단 (<i>n</i> =161)	
쾌적 지향 소재	보온성 소재	3.54	3.69	-1.87	3.49	3.75	-3.15**
	흡수·흡습성 소재	3.35	3.56	-2.24*	3.41	3.53	-1.25
	투습·발수성 소재	3.38	3.63	-2.66**	3.49	3.55	-0.65
	신축성 소재	3.67	3.81	-1.59	3.69	3.81	-1.40
	경량 소재	3.66	3.67	-0.13	3.58	3.76	-1.69
건강 안전 지향 소재	항균·방취 소재	3.02	3.08	-0.46	3.10	3.00	0.82
	정전기 방지 소재	3.24	3.34	-0.97	3.26	3.33	-0.65
	자외선 차단 소재	3.19	3.24	-0.46	3.09	3.34	-2.31*
	황토 소재	3.09	3.08	0.09	3.05	3.11	-0.45
	키토산/알로에 소재	2.90	2.71	1.29	2.79	2.81	-0.13
	방향성 소재	2.92	2.81	0.82	2.81	2.92	-0.80

* $p<0.05$, ** $p<0.01$.

〈표 6〉 건강 상태 및 건강 관심 집단 유형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소유도 (다중응답)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			건강 상태 n (%)		χ^2	건강 관심 n (%)		χ^2
			저집단 (n=153)	고집단 (n=179)		저집단 (n=171)	고집단 (n=161)	
쾌적 지향 소재	보온 기능성	셔츠	73(47.7)	84(46.9)	0.02	70(40.9)	87(54.0)	5.71*
		조끼	58(37.9)	61(34.1)	0.53	51(29.8)	68(42.2)	5.56*
	흡수·흡습 기능성	셔츠	78(51.0)	117(65.4)	7.04**	90(52.6)	105(65.2)	5.42*
	투습·발수 기능성	바지	53(34.6)	60(33.5)	0.05	46(26.9)	67(41.6)	8.00**
		사이클웨어	1(0.7)	6(3.4)	2.91	1(0.6)	6(3.7)	3.97*
	신축 기능성	셔츠	81(52.9)	91(50.8)	0.15	79(46.2)	93(57.8)	4.44*
		바지	92(60.1)	104(58.1)	0.14	91(53.2)	105(65.2)	4.94*
		수영복	28(18.3)	33(18.4)	0.01	23(13.5)	38(23.6)	5.70*
		사이클웨어	5(3.3)	7(3.9)	0.10	1(0.6)	11(6.8)	9.29**
		팔다리보호대	45(29.4)	50(27.9)	0.09	38(22.2)	57(35.4)	7.05**
	압박 스타킹	20(13.1)	21(11.7)	0.14	14(8.2)	27(16.8)	5.64*	
안전 지향 소재	자외선 차단	팔토시	20(13.1)	18(10.1)	0.74	12(7.0)	26(16.1)	6.82**
	경량	자켓	14(9.2)	21(11.7)	0.58	9(5.3)	26(16.1)	10.42**

df=1, *p<0.05, **p<0.01.

서는 많은 제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투습·발수 기능성 바지와 신축 기능성 사이클웨어, 신축 팔·다리보호대, 자외선 차단 팔토시, 초경량 자켓에서 더 큰 차이를 보여 건강 관심이 높을수록 더 많은 활동적인 스포츠웨어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층의 건강 상태의 좋고 나쁨에 정도에 따라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강 관심 집단 간의 차이에서는 고집단에서 거의 모든 제품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나타났지만, 건강 상태 집단 간의 차이에서는 반대로 오히려 저집단이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소유도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오히려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에 관심을 갖고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점차 노년층이 확대되고 건강 상태가 나빠짐에 따라, 기능성 소재에 대한 기대와 활용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노년층의 운동 관심 및 운동 참여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인지 및 착용 차이

1)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인지도

노년층의 운동 관심 및 운동 참여 고저 집단 간의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인지하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동 관심 고저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소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운동 참여 고저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소재는 흡수·흡습성 소재($t=-3.02, p<0.01$), 투습·발수성 소재($t=-2.72, p<0.01$), 자외선 차단 소재($t=-2.00, p<0.05$)로 나타났다. 운동을 직접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닌 간접적으로 즉, 운동경기를 보거나 듣거나 등의 운동 관심의 집단 차이에 있어서는 저집단이 고집단보다 잘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 관심은 단지 보거나 듣는 것에 대한 관심의 차이일 뿐 운동을 직접 참여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운동 관심이 없다고 하여도 기능성 소재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는 높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운동 참여 고집단이 저집단보다 습윤감 관련 소재인 흡수·흡습성 소재, 투습·발수성 소재와 실외 활동 의류인 자외선 차단 소재를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운동을 직접적으로 참여할 때의 기능성 소

〈표 7〉 운동 관심 및 운동 참여 집단 유형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인지도

기능성 소재	운동 관심		t	운동 참여		t	
	저집단 (n=181)	고집단 (n=151)		저집단 (n=168)	고집단 (n=164)		
패적 지향 소재	보온성 소재	3.23	3.27	-0.40	3.18	3.32	-1.48
	흡수·흡습성 소재	3.05	3.17	-1.09	2.95	3.26	-3.02**
	투습·발수성 소재	3.07	3.15	-0.74	2.96	3.26	-2.72**
	신축성 소재	3.55	3.52	0.32	3.51	3.57	-0.61
	경량 소재	3.17	2.98	1.77	2.99	3.17	-1.69
건강 안전 지향 소재	항균·방취 소재	2.92	2.77	1.38	2.82	2.89	-0.73
	정전기 방지 소재	3.06	2.92	1.35	2.95	3.04	-0.87
	자외선 차단 소재	2.85	2.75	0.91	2.70	2.91	-2.00*
	황토 소재	3.10	2.98	1.24	3.14	2.95	1.92
	키토산/알로에 소재	2.51	2.34	1.65	2.48	2.38	0.89
	방향성 소재	2.86	2.75	0.96	2.85	2.77	0.67

* $p<0.05$, ** $p<0.01$.

재 의류 제품의 착용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착용 정도

노년층의 운동 관심 및 운동 참여가 고저 집단 간의 착용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

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운동을 보거나 듣는 것에 대한 관심의 집단 유형 간 차이에서는 경량 소재($t=2.30$, $p<0.05$), 정전기 방지 소재($t=3.12$,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운동 관심 저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 소재들은 모두 운동 시 착용하는 스포츠 웨어

〈표 8〉 운동 관심 및 운동 참여 집단 유형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착용 정도

기능성 소재	운동 관심		t	운동 참여		t	
	저집단 (n=181)	고집단 (n=151)		저집단 (n=168)	고집단 (n=164)		
패적 지향 소재	보온성 소재	3.14	3.25	-1.08	3.10	3.27	-1.76
	흡수·흡습성 소재	2.93	3.13	-1.86	2.83	3.22	-3.63***
	투습·발수성 소재	2.92	2.95	-0.27	2.70	3.16	-4.28***
	신축성 소재	3.42	3.23	1.72	3.38	3.29	0.78
	경량 소재	3.10	2.82	2.30*	2.97	2.98	-0.10
건강 안전 지향 소재	항균·방취 소재	2.25	2.16	0.87	2.20	2.22	-0.22
	정전기 방지 소재	2.76	2.40	3.12**	2.66	2.54	1.07
	자외선 차단 소재	2.50	2.38	1.08	2.32	2.57	-2.24*
	황토 소재	2.25	2.21	0.38	2.30	2.17	1.16
	키토산/알로에 소재	1.90	1.96	-0.70	1.97	1.88	1.00
	방향성 소재	2.03	2.05	-0.27	2.05	2.03	0.19

* $p<0.05$, ** $p<0.01$, *** $p<0.001$.

용 소재보다 일반적으로 평상 시 착용하는 일반의류용 소재들이었으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에 대해 보거나 듣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아도 다른 기능성 소재를 자주 착용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층을 위한 기능성 소재의 다양한 의류 제품 개발이 요구된다.

노년층의 운동 참여의 고저 집단 간의 차이에서는 흡수·흡습성 소재($t=-3.63, p<0.001$), 투습·발수성 소재($t=-4.28, p<0.001$) 및 자외선 차단 소재($t=-2.24, p<0.05$)를 고집단에서 더 많이 착용한다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흡수·흡습성 소재, 투습·발수성 소재에서 높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활동적인 집단이 땀과 관련된 습윤감에 영향을 주는 흡수·흡습성 소재, 투습·발수성 소재를 더 많이 입는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3)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만족도

노년층의 운동 관심과 운동 참여 고저 집단의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착용해 본 후,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운동 관심 집단 간 차이에서는 건강·안전 지향 소재인 자외선 차단 소재($t=-2.08, p<0.05$)와 방향성 소재($t=-2.35, p<0.05$)의 만족도

가 운동 관심 고집단이 더 높다는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운동 참여 집단에서는 쾌적 지향 소재인 투습·발수성 소재($t=-2.53, p<0.05$)의 만족도가 운동 참여 고집단에서 더 높다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만족도는 모든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에서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보여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소유도

노년층의 운동 관심 및 운동 참여 고저 집단의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소유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여기서 운동에 대한 관심이 적어도 노년층은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운동 참여 고저 집단별 활용하는 의류 제품의 종류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운동 참여 저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활동적이며 실내 활동에 착용하는 건강 쾌적 캐주얼 의류를 많이 소유하였다. 반면에, 운동 참여 고집단의 경우, 활동적이며 실외 활동에 필요한 복합기능성 스포츠웨어를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신축성 팔·다리 보호대에서 더 큰 차이를 보여 운동 참여 고집단이 운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활동적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운동 관심 및 운동 참여 집단 유형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만족도

기능성 소재	운동 관심		t	운동 참여		t	
	저집단 (n=181)	고집단 (n=151)		저집단 (n=168)	고집단 (n=164)		
쾌적 지향 소재	보온성 소재	3.61	3.63	-0.26	3.60	3.65	-0.57
	흡수·흡습성 소재	3.47	3.48	-0.03	3.39	3.55	-1.66
	투습·발수성 소재	3.50	3.55	-0.48	3.41	3.64	-2.53*
	신축성 소재	3.76	3.74	0.23	3.75	3.74	0.11
	경량 소재	3.70	3.63	0.62	3.61	3.73	-1.15
건강 안전 지향 소재	항균·방취 소재	2.99	3.14	-1.23	3.06	3.05	0.06
	정전기 방지 소재	3.24	3.38	-1.34	3.29	3.30	-0.08
	자외선 차단 소재	3.12	3.35	-2.08*	3.12	3.31	-1.73
	황토 소재	3.06	3.11	-0.40	3.10	3.06	0.27
	키토산/알로에 소재	2.74	2.90	-1.20	2.86	2.74	0.78
방향성 소재	2.73	3.05	-2.35*	2.90	2.81	0.65	

* $p<0.05$.

〈표 10〉 운동 관심 및 운동 참여 집단 유형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소유도 (다중응답)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		운동 관심 n (%)		χ^2	운동 참여 n (%)		χ^2	
		저집단 (n=181)	고집단 (n=151)		저집단 (n=168)	고집단 (n=164)		
보은 기능성	자켓	111(61.3)	98(64.9)	0.45	91(54.2)	118(72.0)	11.25**	
	셔츠	95(52.5)	62(41.1)	4.31*	73(43.5)	84(51.2)	2.01	
	조끼	73(40.3)	46(30.5)	3.49	51(30.4)	68(41.5)	4.45*	
	장갑	86(47.5)	55(36.4)	4.14*	63(37.5)	78(47.6)	3.44	
	양말	83(45.9)	63(41.7)	0.57	63(37.5)	83(50.6)	5.79*	
	모자	42(23.2)	37(24.5)	0.08	28(16.7)	51(31.1)	9.53**	
흡수·흡습 기능성	양말	75(41.4)	36(23.8)	11.45**	49(29.2)	62(37.8)	2.78	
	사이클웨어	6(3.3)	7(4.6)	0.38	2(1.2)	11(6.7)	6.71**	
쾌적 지향 소재	투습·발수 기능성	자켓	101(55.8)	92(60.9)	0.89	83(49.4)	110(67.1)	10.64**
		셔츠	66(36.5)	36(23.8)	6.16*	48(28.6)	54(32.9)	0.74
		조끼	52(28.7)	27(17.9)	5.34*	33(19.6)	46(28.0)	3.23
		바지	57(31.5)	56(37.1)	1.15	45(26.8)	68(41.5)	7.96**
신축 기능성		셔츠	105(58.0)	67(44.4)	6.14*	85(50.6)	87(53.0)	0.20
		바지	122(67.4)	74(49.0)	11.52**	98(58.3)	98(59.8)	0.07
		속옷	55(30.4)	29(19.2)	5.45*	43(25.6)	41(25.0)	0.02
		트레이닝웨어	52(28.7)	24(15.9)	7.68**	37(22.0)	39(23.8)	0.15
		수영복	42(23.2)	19(12.6)	6.19*	24(14.3)	37(22.6)	3.79
		팔다리보호대	51(28.2)	44(29.1)	0.04	30(17.9)	65(39.6)	19.27***
		압박 스타킹	29(16.0)	12(7.9)	4.96*	24(14.3)	17(10.4)	1.18
경량	자켓	15(8.3)	20(13.2)	2.15	11(6.5)	24(14.6)	5.75*	

df=1, * $p<0.05$, ** $p<0.01$, *** $p<0.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건강과 운동생활에 따른 기능성 소재의 인지와 착용 행동을 파악하여 노년층에게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성 의복 재료를 연구 개발하고, 최적의 기능성 건강 의복을 제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적 연구로서 설문조사 방법을 실행하여 50대 이상의 남녀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332부의 설문지가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 χ^2 검정, t -test,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노년층의 건강생활에 따른 집단별 기능성 소

재 의류 제품의 인지도를 비교해 본 결과, 건강 관심 고집단이 저집단에 비해 쾌적 지향 소재뿐만 아니라 건강·안전 지향 소재에 있어서도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 정도에서는 건강 상태나 건강 관심 모두 고집단에서 대체로 쾌적 지향 소재를 더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 상태 저집단에서 건강·안전 지향 소재를 더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소유도 차이에서는 건강 상태보다 건강 관심에 대한 집단에서 소유 제품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건강 관심이 높을수록 더 많은 활동적인 스포츠웨어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노년층의 운동생활에 따른 집단별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인지도를 비교해 본 결과, 운동 관심 집단보다는 운동 참여 집단에서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운동 참여 고집단이 저집단에 비해 습윤감 관련 소재와 실외 활동 의류 소재를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착용 정도에서는 운동 관심 저집단에서 스포츠웨어용 소재보다 평상 시 착용하는 건강 쾌적 캐주얼 의류용 소재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운동 참여 고집단에서는 습윤감 소재와 실외 활동 의류 소재를 더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소유도 차이는 운동에 대한 관심이 적어도 노년층은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운동 참여 저집단의 경우는 건강 쾌적 캐주얼 의류의 소유가 많고, 반대로 운동 참여 고집단은 복합기능성 스포츠웨어를 더 많이 소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층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건강·안전 지향 소재 의류 제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소재들은 쾌적 지향 소재 보다 상품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건강에 관심이 많을수록 기능성 소재의 관심과 특별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재들에 있어서도 더욱 더 적극적인 개발과 홍보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기능성 소재를 단지 운동을 위한 활동적인 스포츠웨어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 쾌적 캐주얼 의류에도 접목시켜 다양한 기능성 소재의 의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신상품 개발 및 소비자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다양한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다루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사 대상자의 남녀 비율이 고르지 못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특성상 세밀한 부분까지 접근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노년층들에게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기능에 대한 심도 있

는 선호도에 관한 연구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노년층의 기능성 소재 선호도의 비교 연구 등을 후속 연구로써 제안한다.

참고문헌

- 권순정, 문명희 (2004). “실버세대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동주대학교 논문집* 26권.
- 김영애 (1991). “노년기 여성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덕, 김미영 (2004). “중노년층 여성의 의복추구 이미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권 6호.
- 김인형 (2002). “실버계층의 라이프 스타일과 스포츠 소비행동분석을 통한 실버 스포츠 마케팅 전략.”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운철 (2004). “실버의류에 적합한 가공기술: 실버 섬유 키워드는 건강과 쾌적.” *섬유기술과 산업* 8권 2호.
- 서병숙 (1991).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 성기원, 이연숙, 장윤정 (2005). “예비 노년층의 여가활동 현황 및 미래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5권 4호.
- 이수진 (2009). “노년여성의 체형에 따른 재킷패턴 설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신숙 (1999). “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생활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재린 (2005). “노년기 여성을 위한 기능성 의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지혜 (1996). *신피복재료학*. 서울: 신평출판사.
- 정삼호 (2006). “뉴 실버 디자인의 연구 개발방향.” *한국의류학회 2006년도 제30회 춘계학술대회*.
- 정혜원, 김구자 (2002). “노년 여성의 내의 구매 행동,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권 5호.
- 조길수, 정혜원, 송경현, 권영아, 유신정 (2003). *새로운 피복재료학*. 서울: 동서문화원.
- 최라운, 진은경, 유화숙 (2009). “대학생의 기능성 소재에 대한 지식과 기대수준에 따른 행동의도 차이.”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권 2호.

홍경희, 최인려 (2009). “노년층 소비자의 기능성 소재 추구 혜택, 태도 및 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7권 1호.

“국내 패션 시장 기능성 소재 현황” (2007년 9월 1

일 [2009년 8월 20일 검색]). 패션채널 [온라인 잡지];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fashionchannel.co.kr/>